

'대포차' 1,700대 전국 유통 업주·브로커 등 20명 적발

광주지검 5명 구속

자동차의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른 속칭 '대포차' 1천 700여대를 만들어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 유통시킨 '대포상사' 업주와 브로커 등 2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차' 가운데 상당수는 뺑소니 사고나 각종 범죄에 수차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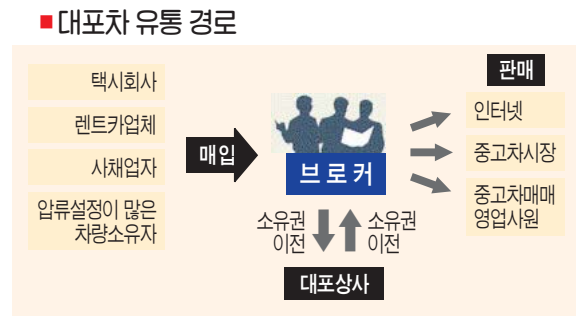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남관)는 23일 '대포차'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쟁취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 장모(3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모(32)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5명을 지명수배 하는 등 광주·전남의 '대포차' 일당 2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형식상 자동차 매매상사(대포상사) 7곳을 차린 뒤 매매상사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총 1천729대의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윤모(38)씨 등은 사용 연한을 4~6년 넘긴 택시와 렌터카, 압류 설정이 많은 차량 등을 인터넷 중고차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뒤 대당 1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포상사 업주에게 알선하고 명의이전을 도와준 혐의다.

이들은 '대포차'를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으며, 차량 구입 희망자에게 ('대포차'를 사면)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구입을 부추겨온 것으로



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번엔 적발된 '대포차' 가운데 일부는 뺑소니 사고나 범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가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광주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속칭 대포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뺑소니 사망사고도 대전 소재 모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로 된 대포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남관 부장검사는 "최근 CCTV 추적 결과 불합리한 강호순 사건도 '대포차'를 이용했다면 검거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로서는 '대포차' 판매업자나 이용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현희기자 choice@kwangju.co.kr

'유령車' 도로 누빈다

세금·과태료 안내는 대포차 수천대
양산·구입 쉽고 처벌 근거조차 없어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령차량'으로 통하는 '대포차'가 버젓이 도로 위를 누빈다. '세금도,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는 입소문을 타고 선량한 운전자들을 탈법행위로 내몰고 있지만, 마땅히 이를 제재할 근거조차 없는 탓이다.

23일 광주지검이 '대포차'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하거나 지명수배한 20명이 만들어 낸 '대포차'는 무려 1천729대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5만여대의 '대포차'가 양산돼 각종 대형 사고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포차'의 고속성장은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운전자들로서는 '비용 절감'과 '책임 회피'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대포차'의 매매알선만을 금지하고 있어 명의만 이전해 주는 대포상사의 업주, 브로커, 자동차 이용자 등 그 누구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공전자기록인 자동차 등록원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아 공전

자기등록불실기재 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같은 허점을 노린 운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LPG택시를 자가용으로 변경한 '대포차'의 경우 차값 자체가 시중가격의 절반 이하에 거래되는데다 연료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대포차' 운전자는 차량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각종 법적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차나 신호위반 '딱지'는 물론, 차량을 이용해 각종 사고나 범죄 등을 저지른 뒤 CCTV에 찍혀도 추적을 피할 수 있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주점에서 흥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차량도 이날 기소된 이들이 만든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이 '대포차'를 구입하는 과정도 너무나 간단하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사이전' 등의 검색어만 치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현희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9분
해질 06시 31분

달돋이 18시 23분
달질 17시 41분

구름 낀 하늘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6/13°C
목포	흐림	5/11°C
여수	흐림	7/11°C
완도	흐림	6/11°C
구례	흐림	4/12°C
해남	흐림	6/12°C
장흥	흐림	6/12°C
고흥	흐림	5/13°C
순천	흐림	6/13°C
영광	흐림	5/11°C
진도	흐림	6/11°C
전주	흐림	6/12°C
남원	흐림	6/12°C
속산도	흐리고 한때 비	5/8°C

비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면바다	동~북동풍	1.0~1.5m	목포 01:37	07:04
	동~북동풍	1.0~2.0m	14:13	19:34
남해 서부 앞바다 면바다	북동~동풍	1.0~2.0m	여수 09:07	02:36
	북동~동풍	1.0~2.0m	21:07	15:07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수)	26(목)	27(금)	28(토)	3/1(일)	2(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4/11	2/11	2/8	1/10	0/11	1/10

수완지구 통학 편의 개선

시내버스 3개 노선 변경·연장 운행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첨단지구와 진월지구, 석곡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첨단95, 문흥39, 석곡87번 등 시내버스 3개 노선을 변경·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첨단95번은 첨단~송암공단을 연결하는 기존 노선에서 광주대 교차로에서 송암공단까지 구간을 폐지하고

진월지구와 노대동 빙고를 노인건강타운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바뀐다.

또 문흥39번은 장동동~수완지구 구간을 폐지하고 첨단지구에서 수완지구 내 중·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개선하고 정부합동청사의

도심 연계성을 강화했다.

석곡87번은 분토~장동동~서방시장~조선대~장원초교~등촌 구간을 순환하는 기존 노선에서 이용 수요가 적은 장원초교~무등파크~4수원지 구간을 폐지하고

대인시장과 문화전남역까지 연장해 재래시장과 지하철을 연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조정으로 첨단·수완지구와 진월지구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송정공원에 '시가 있는 문학관' 광주 '문화 지하철' 새 단장

광주지하철이 봄을 맞아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감성지하철로 새롭게 단장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산구 송정공원에 '시가 있는 문학관'(가칭)을 조성하고 이달 안에 사업자 선정을 거쳐 오는 3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광주시문인협회가 광주시 보조금 등 5천400여만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이 문학관은 지역 중견작가들의 시와 시화 50여점을 전시하게 된다.

특히 광주시문인협회가 추천하는 지역 대표 문인을 기념하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 낭송회 공간도 마련해 시민이 시를 즐기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공사측은 이와 함께 국제라이온스협회 및 광주시문인협회 등과 함께 지하철 19개 모든 역사의 벽면과 승강장 시설물, 전동차에 시화와 격언 등 아름다운 작품을 전시해 남도의 멋과 향취가 있는 '문화 지하철'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영화시사회 및 역사 내 문화공연 등 시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새 봄을 맞아 시와 그림으로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 감성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목타는 섬 주민들에 생수 지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직원들이 23일 목포 삼학도부두에서 겨울 기운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국립공원내 섬 주민 234명에게 공급할 생수를 싣고 있다. 이날 주민들에게 전달된 500㎥ 생수 1만2천병은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등에서 제공했다. /최현희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교장·교감 등 460명 인사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초·중등 교장과 교감, 교육 전문직 460명(시 180명, 도 280명)에 대한 승진 및 정보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동부교육청 교육장에는 공모를 거친 이상태 두암중 교장이 임명됐으며, 시 교육청 교육국장에는 노창수 운남교 교장, 교육인수원장에는 최병량 교육국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전남도교육청은 김승희 중등교육과장이 교육국장으로 승진 임명됐고, 한계수 초등인사 장학관이 초등교육과장, 송병천 중등인사 장학관이 전남교육과학연구원장, 임태준 전남학생교육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영전됐다.

또 전남교육인수원장에는 전병렬 담양교 교장이, 전남학생교육원장에는 김계진 해남교육장이 전보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울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아모레퍼시픽

한울정 화장품은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피부 건강을 도와드립니다.